

제주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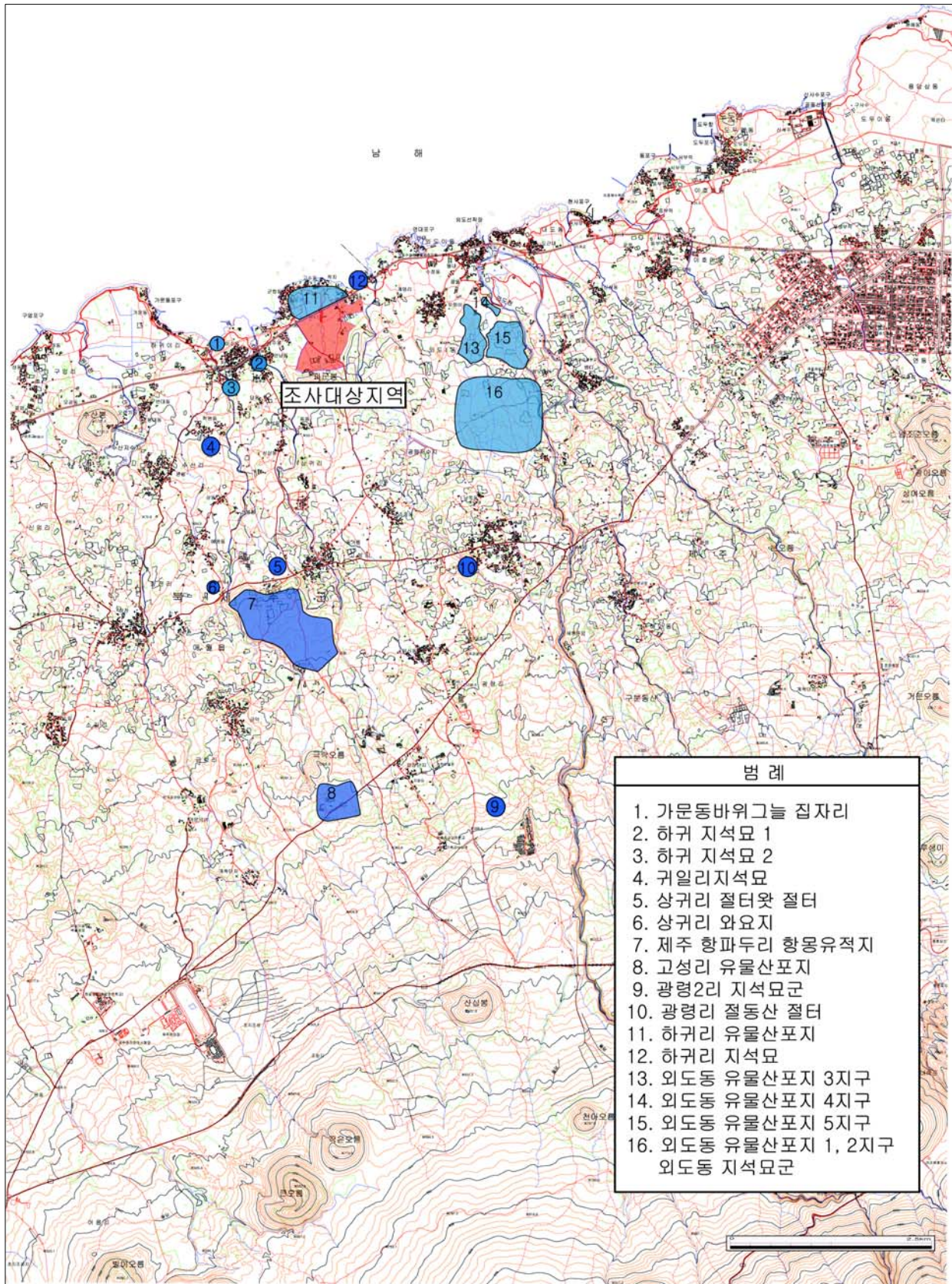
# 지도위원회의 자료



일시 : 2006년 9월 1일

장소 : 제주시 하귀1지구 시굴조사 현장

(財) 湖南文化財研究院



도면 1. 제주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위치 및 주변유적 위치도(1/25,000)

1. 조 사 명 : 제주도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2. 조사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애월읍 하귀리 166일원(324,250㎡)

3. 조사기간 : 2006. 6. 14. ~ 2006. 9. 11.(90일간)

4. 조사기관 : (재)호남문화재연구원

#### 5. 조사단 구성

단 장 : 윤덕향(호남문화재연구원장)

책임조사원 : 이영덕(호남문화재연구원 조사과장)

조 사 원 : 진만강(호남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조사보조원 : 강수형(호남문화재연구원 조사보조원)

#### 6. 조사목적

이번 시굴조사는 제주에서 시행하는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내의 매장문화재와 추정지석묘의 진위확인을 통해 문화유적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시굴조사를 통해 발굴조사의 필요여부를 파악하여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보호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7. 조사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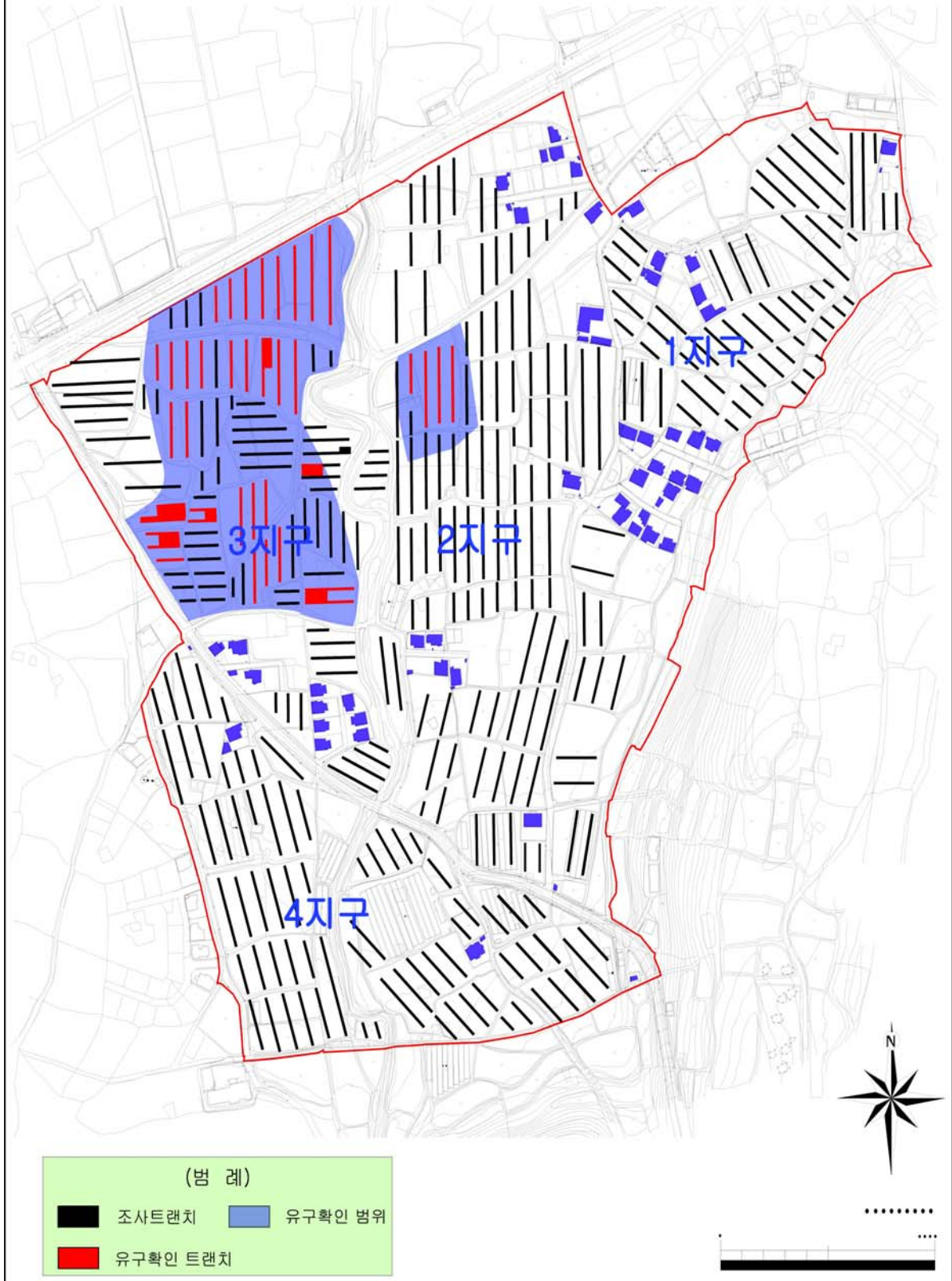
시굴조사 지역은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애월읍 하귀리 166번지 일원으로 제주에서 시행하는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구간에 해당된다. 지표조사는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에서 2003년에 실시되었으며, 총 6구역으로 구분되었다.

지표조사 당시 전구간에 걸쳐서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동문천을 사이에 두고 동서 양쪽에서 주로 탐라시대 전기에 속하는 적갈색무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 각 지역별로 지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1구역에서는 적갈색토기편, 2구역은 자기편과 도기편, 3구역은 적갈색토기편, 4구역은 석기와 적갈색토기편, 자기편, 5구역은 자기편, 6구역은 적갈색 경질토기편 등이 수습되었고 지석묘 상석으로 추정되는 거석이 확인되었다.

한편 조사지역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귀일리 지석묘군, 가문동 바위그늘집자리, 고내리 탐라후기 유적들이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하귀1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에도 이와 관련된 선사, 역사시대 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시굴조사는 북제주군(현재주시)과 본 연구원이 2006년 6월에 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 6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90일간의 일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현황



도면 2.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내 시굴조사 현황도

## 8. 조사방법

조사지역은 대부분 평지로서 밭농사가 이루어져 있었고, 70년대에는 논농사가 이루어졌던 곳이다. 조사단은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물산포지에 대해 조사의 편의를 위해 하천과 도로를 경계로 크게 4개 지구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트렌치는 유물이나 유구의 밀집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였는데 각 그리드 내에 3m의 폭으로 트렌치를 구획하여 유구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문화층으로 판단되는 퇴적층이 확인된 지점이나 유구윤곽선이 확인된 트렌치에 대해서는 유구의 밀집도나 평면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문화층이나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트렌치에 대해서는 층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산회토층까지 굴착하여 퇴적양상 및 문화층여부를 파악하였다.

## 9. 조사내용

조사지역은 한백동산과 과군봉에서 해안으로 흘러내리는 능선상의 평지로 대부분 과수나 밭으로 경작되던 지역이며, 1970년대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 논으로 이용되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조사지역은 지표조사 과정에서 모두 6개 구역으로 구분되었는데 1구역은 적갈색토기편, 2구역은 적갈색무문토기, 자기편, 3·4구역 적갈색무문토기편, 5·6구역은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시굴조사는 이러한 지표조사 결과와 조사지역의 지형을 바탕으로 모두 4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지구의 조사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지구	위치	조사지형	Tr.	현황	비고
1지구	애월읍 하귀리 122 일원	구릉사면 및 평지대	52개(사면방향)	조사진행중	경작물 일부지역제외
2지구	애월읍 하귀리 141-1일원	평지대	108개(사면방향)	조사완료	
3지구	애월읍 하귀리 554-1일원	평지대	98개(사면방향)	조사완료	
4지구	애월읍 하귀리 604-1일원	구릉사면 및 평지대	72개(사면방향)	조사진행중	경작물 일부지역제외

표 1. 하귀1지구 시굴조사 대상지역 조사현황

### 1) 1지구

1지구는 동서방향으로 뻗은 한백동산의 북쪽 사면부에 해당된다. 조사지역의 국지적인 지형은 구릉의 하단 사면부와 평지이며, 대부분의 지역이 경작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삭평된 상태였다. 그리고 일부 지점에서는 용암암반이 드러난 곳도 있었다.

조사는 구릉 사면을 따라 15m의 그리드를 설정한 후 각 3m 폭의 트렌치를 조성하여 유구의 유무를 파악하였다. 트렌치는 총 52개를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단 사면부의 경우 경작토를 약 30cm를 제거하자 암반층이 노출되었고,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던

평지는 경작토를 제거하자 황갈색점토층과 화산회토층이 확인되었다.

1지구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유구윤곽선이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경작과정이나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형질이 변경된 상태였다.

### 2) 2지구

2지구는 동문천 동쪽지역으로 속칭 동머루 서쪽자락에서부터 1지구와 경계를 이루는 시멘트포장도로 사이의 받지역이다. 지표조사에서 적갈색토기편과 자기편 등이 수습된 지역으로 하단부 받지역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조사는 경사방향을 따라 트렌치를 구획하여 실시하였으며,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상단부의 경우 트렌치의 일부를 화산회토층까지 굴착하여 퇴적상황을 파악하였다. 전반적으로 동문천 동쪽인 2지구의 퇴적양상은 화산회토층 상면에 적갈색점토층이 두껍게 퇴적된 양상이며, 그 위에 현경작층인 흑갈색부식토층이 확인된다.

2지구에서는 모두 103개의 트렌치를 구획하여 실시하였는데 해안일주도로쪽인 하단부에서만 유구 윤곽선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유구윤곽선은 Tr. 54에서 溝가 확인되었으며, Tr.62~64 내부에서는 수혈주거지로 판단되는 원형·방형·장방형윤곽선과 주공 등이 확인되었다.

2지구에서 확인된 유구윤곽선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Tr	성격	규모(cm) (길이×너비)	확인유물	비고
54	구1	폭 310	적갈색토기편	
	구2	폭 540	적갈색토기편	방형주거지로 추정
62	원형수혈	직경 61	토기편	수혈내부에 직치됨
63	장방형수혈	178(?)×516		
	장방형수혈	120(?)×478	적갈색토기편	
	주공	직경 30~65	적갈색토기편	규칙성 없음
64	방형수혈	166(?)×386		
	주공	34~48	적갈색토기편	규칙성 없음

표 2. 2지구 유구 현황

### 3) 3지구

3지구는 해안도로에서 하귀마을 중앙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동문천 사이의 지역으로 조사지역의 서북쪽에 해당한다. 해안가로 가면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데 돌담을 경계로 한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지표조사 과정에서 다량의 적갈색토기편과 석재편이 수습된 지역으로 3지구의 남쪽 경계지점에는 지석묘로 추정되는 상석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조사는 지표조사 자료를 통해 유물이 수습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문화층이 확인된 지점은 10m의 그리드내에 3m의 트렌치를 1개씩 구획하였고, 그 외 확인되지 않는 곳은 15m 그리드내에 3m의 트렌치를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트렌치는 총 98개를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3지구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유구 윤곽선은 주거지로 판단되는 장방형, 방형윤곽선과 원형수혈, 주공, 소토유구 등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유구 윤곽선이나 퇴적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유물은 적갈색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동일시점에 형성된 유구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식묘의 상석으로 추정되었던 석재는 민묘의 돌담에 걸쳐있어 조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최근에 정원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옮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3지구 트렌치 내에서 확인된 윤곽선과 유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Tr.	성격	규모(cm) (길이×너비)	확인유물	비고
7-8	주공	직경 20~60	토기편, 사슴 이빨	3열을 이루며 약 50여개의 주공이 확인됨
9-10	추정분묘 구	220(?)×125 750(?)×136	적갈색토기편, 뼈 적갈색토기편	유구와 유물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장방형수혈1	380×525	적갈색토기편	
	장방형수혈2	180(?)×435	적갈색토기편	
	장방형수혈3	320(?)×445	적갈색토기편	
11	원형수혈	?		
20-21	원형수혈	직경	적갈색토기편	
26-27	장타원형수혈	327×528	적갈색토기편	2개의 원형수혈이 중복됨
	장방형수혈	255×177		
38	수혈	?×300	옹형토기편	목단과 소토가 확인되며,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음
39	방형수혈	436×175(?)	적갈색토기편	
40	주공	직경18~30		3열로 배치
41	알수없음(수혈)		적갈색토기편	
42	수혈	165×67	적갈색토기편	
44	원형수혈	직경123		주변에 직경28~40cm의 주공확인 및 주변교란
45	원형수혈	직경88	적갈색토기편	
46	유구(1)	?	적갈색무문토기편	중첩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음
	원형수혈	직경 316(?)		
	방형수혈	470×382(?)		원형수혈과 중복
	구	?×110		
47	유구(2)	430×227(?)		
	구	?×50		
48	주공	직경30		
	유구(1)	방형(?)	적갈색토기편	하단에서 확인되어 정확한 형태와 규모는 알 수 없음
53-54	구	?×150	적갈색토기편	하단이 좁고 상단이 넓은 형태
60	원형수혈	직경120	주변에 토기편 확인됨	
61	구	?×50	토기편	
63	구	?×160	적갈색토기편	
66	유구(1)	?	토기편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음
	원형수혈	직경75	토기편	석재가 적석되어 있음
67	주공	직경20~30		
68	주공	직경20~50		2열이 확인되며, 나머지는 규칙성 없음
69	원형수혈	직경75		수혈주변으로 주공확인
71-72	장방형수혈	246×140	적갈색토기편	
82	원형수혈1	직경 65	적갈색토기편	
	원형수혈2	직경 118		
	주공	직경 25~63		규칙성없음

Tr.	성격	규모(cm) (길이×너비)	확인유물	비고
83	구1	?×93	적갈색토기편	
	구2	?×384		
	원형수혈(?)	직경 295	적갈색토기편	
	주공	직경 25~73		규칙성없음
84	구	?×84		
	원형수혈	직경 191	적갈색토기편	
	주공	20~54		규칙성없음
85	구	?×112		
	원형수혈	직경 104		
	주공	직경 20~30		
86	주공	직경 27~44		2개확인
87	방형수혈(?)	47(?)×197(?)		
88	주공	직경 40		
89	구	?×670		
	주공	직경 27~87		
90	구1	?×93		
	구2	?×154		
	주공	직경 38		

표 3. 3지구 문화층 및 유구 조사현황

이상과 같이 3지구내에서 확인된 윤곽선과 유물은 중심 연대가 탐라시대 전기로 편년되는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동문천의 방향과 일치하는 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 4) 4지구

4지구는 조사지역의 남쪽으로 파군봉에서 뻗어 내린 지맥과 맞닿은 평지에 해당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센터의 시험재배단지나 시설채소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상당부분 원지형이 훼손된 지역이다. 지표조사 과정에서는 백자편과 도기편이 확인되었으며, 선사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는 파군봉의 사면 방향을 고려하여 남북방향의 트랜치를 구획하여 굴토하였다. 퇴적 양상은 전체적으로 일정하지 않으나 현 경작층인 흑갈색부식토 아래에 황갈색점토층이나 화산회토층이 퇴적되어 있었으며, 일부 지점의 경우 경작토 아래에서 바로 화산회토층이나 깊게 굴착된 교란구덩이가 확인되었다.

트랜치는 총 70개를 구획하여 평면윤곽선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지점의 층위를 확인하기 위해 풍화암반층까지 굴착하여 퇴적양상 및 문화층 유무를 파악하였다.

4지구에 대한 조사결과 트랜치 내부에서 유구윤곽선이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 10. 조사성과

제주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유적 시굴조사 성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지역은 대부분 최근까지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일부 지역은 개간과 개답 과정에서 상당부분 원지형이 훼손된 상태였다. 그리고 지표조사에서 지식묘의 상석으로 추정되었던 석재는 주민의 전언과 주변 지역의 트랜치 조사를 통해 보았을 때 지식묘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각 지구별 조사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지구는 한백동산 사면부로 지면에 현무암의 암반층이 노출되거나 퇴적이 얇은 편이다. 대체로 퇴적양상은 경작토, 황갈색점토층, 화산회토층이 순차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유구나 유물은 없었다.

2지구는 사면의 상단인 남쪽의 경우 비교적 양호한 퇴적이 확인되며, 두거운 점토층이 확인되나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유물이나 유구윤곽선은 없었다. 그리고 하단인 해안도로쪽은 운전면허학원이 시설되는 과정에서 깊게 굴착되어 원지형이 대부분 훼손된 상태였다. 그리고 유구윤곽선이 확인된 곳은 운전면허학원이 있던 지점에서 남쪽으로 한 단 올라온 밭지역으로 원형의 수혈윤곽선과 주거지로 추정되는 방형, 장방형윤곽선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직경 50cm 내외의 소형 수혈내부에 토기 1개체분이 직치된 채 노출된 것으로 보아 최근 남제주 화순리유적에서 확인된 직치옹관과 같은 유형의 유구일 가능성이 있다.

3지구는 북서쪽 하단부와 동문천과 맞닿은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구윤곽선이 확인되었다. 퇴적이 대체로 얇은 편으로 문화층은 경작토인 흑갈색부식토 아래의 황갈색점토층이나 화산회토층에서 확인된다. 확인되는 유구는 주거지로 추정되는 방형이나 장방형윤곽선과 소형수혈군, 구, 지상건물지로 추정되는 주공열, 옹관묘로 추정되는 직치된 토기 등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내부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적갈색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 탐라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주거군으로 판단된다.

4지구는 과군봉 북쪽 사면과 맞닿은 평탄대지 지역으로 시설채소단지나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으며, 퇴적이 다른 지점에 비해 얇은 편이었다. 전반적인 퇴적양상은 경작토와 황갈색점토층, 화산회토층순이며, 일부지점에서는 경작토를 제거하자 바로 화산회토층이 노출되기도 한다. 그리고 시굴조사 과정에서 유물이나 유구윤곽선은 확인되지 않았다.

## 11. 회의 안건

- 조사지역 처리문제
- 발굴조사 지역의 범위 및 조사기간



사진 1.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전경



3Tr. 조사상태



3Tr. 토층상태



30Tr. 조사상태



37Tr. 조사상태



58Tr 조사상태



58Tr 토층상태

사진 3. 1지구 조사상태



107Tr. 조사상태



107Tr. 토층상태



56Tr. 유구 확인상태



54Tr. 유구 확인상태



62Tr. 옹관묘(?) 확인상태



64Tr. 수혈유구 확인상태

사진 4. 2지구 조사상태



3지구 조사전경



7Tr. 주공열 확인 상태



8Tr. 주거지 확인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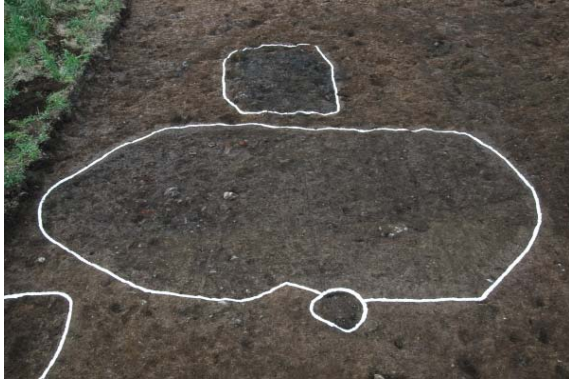


47Tr. 유구 확인상태



64Tr. 유구 확인상태

사진 5. 3지구 조사상태



26Tr. 유구 확인상태



86Tr. 유구 확인상태



83Tr. 유구 확인상태



20Tr. 유구 확인상태



20Tr. 유구 확인상태



66Tr. 옹관묘(?) 확인상태



47Tr. 옹관묘(?) 확인상태



47Tr. 수혈유구군 확인상태

사진 6. 3지구 조사상태



4지구 조사 전경



16Tr. 조사전경



25Tr. 조사전경



29Tr. 조사전경



47Tr. 토층상태

사진 7. 4지구 조사상태